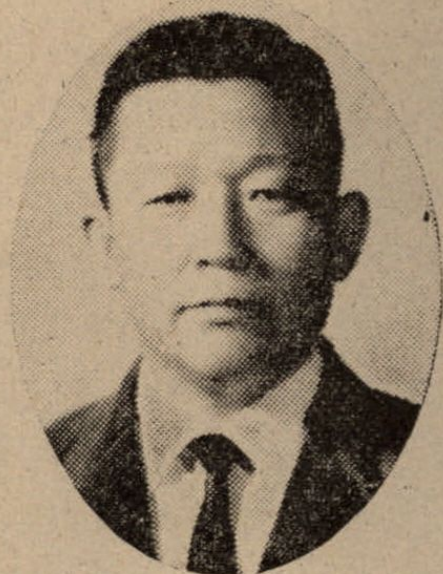




마르지 안는 샘

교감(고)

김

덕

용

내가 무척 배타적이라고 나에게 충고해 주신 선생님이 제십니다.

일년에 몇번 쯤 그 선생님의 말씀과 얼굴을 기억 속에 떠올리며 그때마다 나는 배타적이 되지 않으려고 꽤 애를 씁니다.

그 선생님의 말씀인즉 여러 선생님들 중 몇 분만을 편애 한다는 것이었고 편애는 배타로 통한다는 것입니다.

내가 그 충고를 얼마나 고맙게 받아들였는지 그 선생님은 알지 못하는 채 지금은 몇 자녀를 거느린 어머니로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.

나는 내 자신을 돌이켜 볼 때 그 편사성이 미워 죽을 지경입니다. 왜 좀더 넓고 대범하게, 마음이 있건 없건 한결같이 미소를 뿌리는 대인 관계를 맺지 못하느냐 말입니다.

어제도 영어 수업 시간에 나온 단어 ENVIOUS를 설명하며 장광설을 늘어 놓았습니다.

「애와 증」은 백지 한 장 차이도 안되는 것이기에 자유자재로 둔갑하며 지극히 사랑하던 사람을 또 지극히 미워하게 만들 수 있다고……

여학생 학급에서는 대수롭지 않은 말다툼으로 서로 외면하며 말을 하지 않는 거북한 친구들이 으레 4, 5쌍은 있기 마련이기에 조사를 했더니, 아 니나 다를까 한 학급에서 6쌍을 발견 하였습니다. 이런 여학생다운(?) 현

상 역시 편애성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.

장점 아닌 단점이라면서 지적해 준 충고인 바에야 나 자신 포괄성 있는 관용의 소유자가 되고자 지극히 애써 보지만 고치기에는 너무 늦은 그 단점—극한성—은 도리어 더욱 더 심화되어 가는 것만 같습니다.

송학의 터전 인성, 어느 누가 이 극성을 비난할지라도 세상에서 이곳만은 편애하지 아니 할 수 없는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. 초겨울 하오의 햇볕이 교무실 유리창을 뚫고 책상에 굽힌 등을 한 번 찌르면 마취제모양 온 몸에 퍼져 집무의 무아에서 마치 일어 죽은 사람의 도취로 옮겨가는 황홀, 차라리 이대로 죽었으면 하고 인성의 귀신 되기를 간절히 빌어 보는 극성은 고쳐지지는 않습니다.

유월에 들어서면서 하루에 두 서너 번씩 나서는 곳이 꼭 그 자리—본관 현관앞에서 우러러 보는 자유 공원의 우거진 숲과 그 뒤의 울창, 그 모두가 높이 솟아 있는 교회 첨탑 십자가와 이루고 있는 조화, 이런 곳에 대한 편애가 내가 배타적이 되기 시작한 결정적인 요인이라면 굳이 아니라고는 않겠습니다.

십 칠 년을 두고 지켜 내려 온 인성의 딸들.

입에서 떠나 본 적이 없는 극성의 잔소리를 피하기 위해 졸업 후 거리의 골목길에서도 살짝 돌아서는 커다란 딸들. 그러다가도 마주 앉아 풀어 놓은 대화의 보따리에서는 아직도 그렇게 무섭도록 잔소리를 하느냐고 살짝 물으며 얼굴의 주름살을 세면서 “할아버지가 다 되셨군요” 하는 구슬픈 말 뒤에 “제가 딸을 낳으면 꼭 인성에 보낼테야요.” 하는 신뢰의 매듭, 그것은 정녕 용기의 원천이 되고 집착의 물줄기가 되어 줍니다.

인성은 흐릅니다.

영원한 샘이 되어 흐릅니다.

온 서해를 관망할 수 있는 자유의 고지, 그 뿌리에 샘터를 파 헤친지 20여년. 인성의 딸들이 가꾸며 마시며 애쓰며 아끼는 끊어지지 않는 샘물입니다.

내가 이 샘터를 배타적으로 편애하게 된 것은 피할 길 없는 필연입니다. 이제 이 편애의 대상을 넓히고자 애써 보는 방법만이 남았습니다.

샘터가 생깁니다.

어렸을 때 내가 자라던 고향의 샘터입니다. 길가 유난히 풀 무더기가 무성했던 가운데에 직경 2m 정도의 샘이 있었습니다. 그 샘물이 먼 바다에까지 흘러 간다고 증조부가 말씀해 주셨고 나는 항상 미지의 바다를 마음 속에 그

리며 샘을 대했었습니다.

샘물은 보이지 않는 바다로 가기 전에 풀이 나란히 마주 서 있는 조그만 도랑으로 금방 달아나 숨어 버렸고 물가에는 소 발자국이 뚜렷이 박혀 있곤 했습니다.

그것은 마치 도깨비 장난인 양 매일 매일 있다가는 없어지고 늘었다가는 줄어들며 임의로 변화해 갔습니다.

봄이 지나고 여름이 길어지면 샘가는 더욱 붐비고 유난히 활기를 띠웁니다.

할아버지와 어딘가에 다녀 오던 날, 샘물을 마시기를 거부하는 손자를 샘머리에 앉힌 채 할아버지는 옆드려 샘에 얼굴을 대고 물을 깊숙이 들이마시고 일어나셨습니다. 저녁 먹으라고 찾아나오신 어머니께 “할아버지 절을 받았다”고 자랑 자랑한 기억이 샘터에 대한 기억을 더욱 새롭게 해주고 있습니다.

아무리 심한 가뭄일지라도 한 번도 마르지 않았다는 길가 샘물 줄기를 나는 자란 후에라도 잊지 않고 찾았습니다. 군대에 나가 휴가를 얻어 고향을 찾으면 꼭 찾았던 샘터.

혼자라면 더욱 더 즐겨 오랫동안 쪼그려 앉아 드려다 보곤 했습니다. 왜 하필이면 넓고 넓은 땅에서 이곳에서만 물이 솟아 오를까?

오랫동안 세기의 많은 변천을, 설경 속의 검은 동사와 같은 샘은 얼마나 잘 지켜 보았을 것인가?

멀어가는 과거가 미래를 앞지르며 현재를 파고 듭니다.

날로 해가 짧아지고 있습니다. 어둡게야 파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인성의 딸들이 교문을 나서며 길 저편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며 증조부의 팔에 안겨 다니던 시절의 그 샘터를 연상하곤 합니다.

인성의 샘터.

마르지 않는 영원의 흐름.

인성이라는 샘터를 지키고 가꾸기 17년 오늘도 지켜 보며 쪼그려 앉아 있는 편사한 집착은 세살 때 버릇이리라.

망망한 서해로 이어지는 인성의 흐름, 딸들아! 그 음성을 들어 하늘에 기록해 보자.